

일본 면업 진흥회의 유명 전시회 리포트 - 2011년 초하절의 코튼 소재 트렌드 중 리넨 코튼의 시즌 평가

일본 면업 진흥회(日本 綿業 振興會)의 프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 : PV)과 밀라노 유니카(Milano-Unica : MU)의 출품 내용에 관한 리포트에 의하면, 2011년 춘하절의 코튼(cotton) 소재 트렌드는 입체형(立體型)인 생지 표정(生地 表情)이나 피브릴감(fibril感)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프레시(fresh : 신선함), 크런치(crunchy : 상쾌함), 논살랑(佛 : nonchalant : 무관심함)’이 키워드(key word)가 되고 있다.

생지의 터치는 소프트화, 경량화하는 경향이 빨라지고 있지만 드라이하고 러스틱조(rustic調 : 素朴함)에 크게 주목이 쏠리고 있다. 말쑥하고 때로는 까칠까칠한 촉감의 피브릴감(fibril感 : 미세한 섬유감)이 신선하게 받아지고 있으며 ‘실크-코튼(silk -cotton)보다는 리넨-코튼(linen-cotton)의 시즌(season)’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실의 사용도 슬럽(slub)사 등의 팬시 얀(yarn)을 사용한 것이 많아 보이며 ‘모쿠이도조(杓調 : grandrelle yarn)’나 ‘가스리(緋)’ 같은 무늬 등 컬러믹스(color-mix)도 많아졌다.

조직에서는, 셔츠지의 범위가 넓어졌으며 킵(Gingham), 마드라스(Madras), 핀·스트라이프(pin-stripe) 등 선염에, 샴브레(Chambray)나 옥스퍼드(Oxford), 엔드&엔드(end&end :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사를 엇갈리게 배열한 직물), 헤링본(herringbone)과 같은 베이식한 조직들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여기서도 투박한 리넨조(linen調)의 인기가 높았으며 조금 거친 직물이나 니트가 새롭게 보이며, 글렌 체크(Glen check :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check 무늬로 경사·위사에 배열하여 제작한 직물)와 같은 트위트(tweedy : 격식을 차리지 않은)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중직과 같은 더블 페이스(double face)나 통기성이 좋은 생지도 셔츠지로 확대되고 있다.

표면감은 서커(sucker : 줄무늬의 평직 바탕을 날실만 오그려서 주름지게 한 천)나 리플(ripple : 표면 가공으로 오그라들게 한 면직물), 염축 가공(鹽縮 加工 : salt shrinking 가공 : 絹이나 면직물을 중성 無機鹽의 熱濃厚 용액에 짧은 시간 침지하여 팽윤, 수축시키는

加工) 외에도,凹凸을 강조한 피케(pique :凹凸 무늬가 있는 두꺼운 면직물), 자카드(jacquard) 등의 입체감이 있는 것이 인기였다.

마무리는 워셔(washer)나 유즈드 가공(used 加工 : 새 옷을 낡은 것처럼 만드는 가공) 등의 빈테이지조(vintage調)의 가공 트렌드(加工 trend)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켓(silket)이나 친츠(chintz : 광택이 있는 면평직물), 라미네이트 코팅(laminate coating), 금박(金箔) 가공, 라메 가공(lame 加工)을 사용하는 등 광택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늬는 디지털 프린트(digital print)나 제품 염색(製品 染色)이 많아지고 있다. 큰 무늬의 그래픽 아트(graphic art) 감각이나 하이퍼 리얼리즘조(hyper realism調)의 대담한 무늬도 눈에 띄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식물(植物)이나 동물을 수채화(水彩畵)같이 또는 추상화(抽象化)같이 그리는 것도 많았다. 작은 꽃무늬나 물방울 등의 기하학 무늬도 움직이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작은 무늬(紋) 등의 일본풍 무늬도 새로운 감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그먼트 효과(pigment 效果)나 엠브로이더리(embroidery) 등의 가공을 사용한 프린트가 눈에 띄는 것도 특징이다.♣